현대 도시축제의 참여의식에 대한 일고찰*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弘前よさこい津軽)를 중심으로-

이 덕 구**
(e-mail: dklee0618@hj.ac.kr)

目 次

1. 서론
2. 히로사키시(弘前市)와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
3. 아오모리하나아라시사쿠라구미(青森花嵐桜組)의 오도리코(踊り子)
4. 결론

1. 서론

종교행사로서 일본의 전통마쓰리(祭り)는, 전후(戦後) 부흥기를 거쳐 상업 진흥의 목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다가, 고도경제성장기의 도시화의 영향으로 한편으로는 축소와 중단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화에 따른 확대가 병행되었으며, 오늘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벤트성 짙은 축제(祭礼)[1]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축제의 성격변화는 필연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형태에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혜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혜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1) 일본에서 축제라는 용어는 일부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용어로 통용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마쓰리(祭り)'는 전통축제를, '축제(祭礼)'는 관광화된 현대축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전통에 기초한 수많은 마쓰리들이 관광객을 의식한 볼거리 행사로 전환되었으며, 신이 없는 이벤트성 축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의 '현대도시축제'는 오늘날 일본의 도시에서 연행되고 있는 '관광화되거나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축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나이(町内)의 지연집단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며, 오곡풍양(五穀豊穣)과 무병식재(無病息災)를 비는 종교행사로서 공동체의식을 생산하던 전통축제가 전후(戦後), 관광목적의 이벤트성 행사가 되면서, 참가형태에 있어서는 동호회와 같은 선택연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의식면에 있어서도 환경운동, 여성운동, 생협운동, 볼런티어 운동과 더불어 와해된 조나이를 대신하여 자신의 도시나 지역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가꾸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역운동, 나아가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히로사키시(弘前市)는, 아오모리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대한 쓰가루(津軽)평야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지만, 히로사키성(弘前城)과 네푸타축제(ねぷた祭り)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의 진전, 또한 교외의 개발로 인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등 도시의 쇠퇴가 심각한 경향에 있다.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弘前よさこい津軽)축제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상인연합회가 주도하는 이벤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사코이축제에 오도리코로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특히 요사코이쓰가루(弘前よさこい津軽)축제에의 참가팀인 아오모리사쿠라구미(AOMORI花嵐桜組)에 초점을 맞추어 팀의 특색과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며, 팀원인 오도리코들의 요사코이에 관한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 요사코이 수용자인 오도리코들은 왜 어떻게 요사코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2)]

요사코이축제에 대하여는 최근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지역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요사코이축제의 개최상황과 전개과정, 도입형태, 전파이유와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적극적 참여자인 오도리코들이 축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식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치다(内田 1992,1994)와 야지마(矢島 2006)에서도 축제 참가자의 최소단위를 개인이 아닌 팀으로 보고 팀별 구성과정과 원리, 지향점 등에 대하여는 살펴보고 있으나 개인의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3)] 개인의 희열과 감동이 축제의 지속적인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2)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8년 여름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약 30문항의 질문지를 준비하여, 히로사키시의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축제 참여자인 오도리코 개개인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E메일을 통한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사코이津軽 실행위원회사무국의 축제담당 市川みどり씨, 그리고 아오모리 생협에 근무하는 円山阿紀씨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3) 요사코이축제(よさこい祭り)에 관하여는 먼저 이토(伊藤 1987)가 심포지움의 코멘트에서 "요사코이축제는

하기 때문에 축제의 구성요소나 특징뿐만 아니라 개인이 축제에 대해 느끼는 의미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현대 도시축제의 대명사급으로 잘 알려진 요사코이축제 참여자들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는 이러한 연구는,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축제에도 의미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히로사키시(弘前市)와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

히로사키시(弘前市)는, 아오모리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라가미산지(白神山地)를 근원으로 하는 굴지의 곡창지대인 광대한 쓰가루(津軽)평야를 바탕으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히로사키의 역사는 17세기 초(1603年) 이신(為信)이 쓰가루(津軽)지역을 통일하고, 초대 쓰가루한슈(津軽藩主)가 되면서 새로운 성(城)의 건설을 계획하

개인적인 자유로운 참가의 길이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는 축제이며, 인간관계와 조직면에서도 도시적인 요소를 대단히 명확한 형태로 전개해 가는 축제이다"라고 하여 요사코이 축제의 개방성과 도시성에 주목하였다. 이후 우치다(内田 1992,1994,1998)는 코오치의 요사코이축제에서, 축제의 사람과 장소, 즉, 오도리코대(踊り子隊-참가단체)와 경연장에 주목하여, 축제를 둘러싼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검토하여, 코오치 요사코이축제의 오도리코대는 익명성을 띠고 있으며, 경연장은 시가지의 확대와 상점가의 성쇠에 따라 이동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50회를 눈앞에 둔 코오치요사코이축제의 변천을 살피고, 이 축제의 특징이 구경꾼을 의식하여 만족시키는 보여주는 축제에 있다고 하면서, 코오치 요사코이축제는 50년에 걸쳐 춤과 음악, 참가단체의 결성계기와 축제의 경연장소가 꾸준히 변화해 왔고 여전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内田 2000). 2004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요사코이계축제는 삿뽀로나 코오치를 모방하면서도 각각의 지역성을 전면에 표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요사코이계축제에 의한 지역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지적하고 있다(内田 2004).

야지마(矢島 2000a)는 요사코이축제에는 야나기다가 말하는 도시제례의 특징인 '구경꾼(見物人)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하면서, 오늘날 도시축제의 전형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야지마(矢島 2000b)는 요사코이축제가 전국에 전파될 때 관여되는 '사람'에 주목하여, '감동한 여행자들(感動した旅人)'의 존재를 살펴보았으며, 코오치의 요사코이축제(よさこい祭り)가 삿뽀로로 전파되어 요사코이소랑축제(YOSAKOIソーラン祭り)가 되기까지의 전개과정과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요사코이계축제의 개최상황과 도입형태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矢島 2000c). 나아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요사코이계축제가 각각 어떠한 지역성을 표출하고 있으며(矢島 2003a, b), 전국적으로 전파되어간(가고 있는) 이유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 야지마(矢島 2006)는 지금까지의 요사코이축제의 연구를 종합하여 현대도시축제의 원리를 결정짓는 키워드로 ①느슨한 룰 ②다양성과 선택성 ③차이성과 통일성 ④우라마쓰리(ウラ祭り) ⑤협조적 연대와 경쟁적 연대 ⑥오센티시티와 리얼리티 ⑦신문화 지역문화의 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모리(森1999)도 요사코이의 지역적 전개요인을 연구하면서, 요사코이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교라는 시설과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고 있다. 또 지역축제의 매너리즘의 탈각이라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반 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점과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는 참가자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전에는 특정지역의 남성만으로 한정되던 전통적 축제와는 대조적이며, 전국대회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축제에 서로 팀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넓혀 가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www.kci.go.kr

면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 영주가 존재하는 조카마치(城下町:성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 성곽도시)로서, 쓰가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유신의 폐번치현(廃藩置県) 이후, 무사계급의 몰락과 함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후(戦後)에는 설치된 현청도 이윽고 아오모리로 옮겨감에 따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아오모리로 넘겨주게 되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히로사키시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이 1개교, 사립대학이 2개교, 사립단기대학이 2개교, 방송대학이 1개교, 전수학교(2년제 전문학교)가 8개교가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 수가 약 11,000명에 이르는 아오모리현은 물론이고 동북지방에 있어서 굴지의 학원도시(교육도시)로 지적자원의 풍부함과, 번정기 이후 계승되어 온 역사적 자원(번정시대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원거리, 전통 건축물, 메이지・다이쇼기의 서양식 건축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통고도(伝統古都)로서, 특히 200년 이상 된 무사집안의 저택 등에서는 당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역사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서 들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성향은 내륙에 위치한 전통 도시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아오모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나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의 진전, 자동차보급을 배경으로 일상생활권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교외의 개발, 특히 1994년 '대점법(大店法)' 완화개정 이후, 교외에 대형유통업체가 집적하고,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교외입지 등의 요인으로 의해, 중심상가의 대형점포의 이전이나 폐업이 계속 되어, 빈 점포도 발생하는 등 쇠퇴 경향에 있다.[4)]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히로사키시는 2000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어 거리를 즐기는 장치로서의 구체적인 이벤트가 6월에는 요사코이 쓰가루축제(よさこい津軽まつり), 7월에는 모모이시납량야시장축제(百石町納涼夜店まつり), 8월에는 역전여름축제(駅前夏まつり), 9월에는 도테마치컬쳐로드(土手町通りカルチュアロード)등이 속속 탄생하였다.[5)]

'요사코이축제'[6)]는 코치시(高知市)의 '요사코이나루코축제(よさこい鳴子祭り)'를

4) 특히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것은 대점법 완화이후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보행자 통행이 감소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중심시가지로부터 철퇴하여, 교외로 이전 개업하면서 넓은 매장과 저가격, 편리한 주차장,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확보 등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한 쇼핑공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이덕구 2011,298~300쪽 참조).

5) 弘前市市街地活性化基本計(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igaichi/pdf/01.pdf)참조.

6) 요사코이축제의 핵심요소는 행진차, 음악, 오도리(춤)이다. 행진차는 지카타샤(地方車)로 불리는 데 열을 지어서 춤을 추는 각 오도리코대의 선두에서 화려한 장식을 하고 음악을 울리며 천천히 행진하는 차를 말한다. 음악에서는 특히 나루코(鳴子)가 중요하다. 나루코(鳴子)란, 조그마한 주걱과 같은 모양을

발상으로 한다. 이 축제는 오도리의 스타일이나 의상, 음악의 자유로움과 참가자에 의한 '보여주는'(内田 2000)축제로서 1954년에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코치(高知)상공회의소의 주도로 시작된 축제이다. 이것이 1992년 코치(高知)의 '요사코이축제'를 보고 감동한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대학생에 의해 삿포로(札幌)에 전파되어 '코치의 문화와 홋카이도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축제 '요사코이소란(よさこいソーラン祭り)'이 탄생되었다.

표1) 아오모리현의 요사코이계축제 생성현황

축제명	개최년	개최지	도입형태
요사코이津軽	2000	弘前市	새롭게 시작한 형태
하치노헤요사코이축제	2000	八戸市	새롭게 시작한 형태
요사코이三海축제	2000	三沢市	새롭게 시작한 형태
도와다요사코이夢축제	2001	十和田市	기성축제에 요사코이를 추가한 형태
津軽요사코이페스티발	2001	尾上町	새롭게 시작한 형태
히가시도오리요사마이 나루코오도리	2001	東通村	기성축제를 요사코이로 대신한 형태
아오모리하루페스티발	2006	青森市	새롭게 시작한 형태

이 '요사코이소란축제'의 성공에 따라 2006년 시점으로 전국각지 약 200개소 이상에 요사코이형식의 축제가 전파되었다(岡崎 2006, 3쪽).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도 아오모리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요사코이형식의 축제로서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 현내(県内)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는 매년 6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장이 되는 히로사키시 도테마치거리는 오전9시부터 오

한 판자의 양쪽 부분에 두 개의 작은 판자를 대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일종의 악기이다. 요사코이축제에서는 양손에 반드시 들고 짝짝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어야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다. 또한 음악에는 그 시기의 유행에 따라, 참가팀의 개성에 따라 삼바, 록, 재즈, 레게,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편곡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부분에 '요사코이나루코부시(よさこい鳴子節)'를 삽입하여 편곡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으로 전파된 요사코이축제가 그 지역에 스며있는 민요를 어렌지 함으로서 각 지역의 지역성을 살리는 결정적요소로 활용된다. 오도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음악과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며, 보통 퍼레이드 형과 무대 형이 있다.

www.kci.go.kr

후 4시까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9시30분에는 출진식이 거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각 팀이 6개소로 나누어진 회장에서 오도리를 표현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본 규칙으로는 손에 나루코를 들고, 음악에는 소랑부시(ソーラン節) 혹은 쓰가루의 지역민요를 반드시 한 소절 삽입하여 4분30초 이내로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과 한 팀의 최소인원을 15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의상과 메이크, 안무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오도리의 형식에 있어서는 스테이지형식(가로 20m, 세로 10m를 최대로 하여 춤추는 형식)과 퍼레이드형식이 있고 퍼레이드형식은 다시 전진형식과 정지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전진형의 퍼레이드는 폭6m의 코스를 춤추면서 70m씩 전진하는 형식이며, 정지형의 퍼레이드는 같은 진형이나 진행하지 않고 정지하여 춤추는 형식이다. 각 회장의 환경조건(도로 폭과 장애물 등)에 따라 진형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표2) 요사코이쓰가루의 연도별 개최상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일	팀수	참가인수	관객
제 1 회	2000年	6.25	8		100,000
제 2 회	2001年	6.24	11		130,000
제 3 회	2002年	7.7	19	729	120,000
제 4 회	2003年	6.22	24	872	120,000
제 5 회	2004年	6.27	25	875	100,000
제 6 회	2005年	6.26	28	917	120,000
제 7 회	2006年	6.25	32	1,034	120,000
제 8 회	2007年	6.24	37	1,099	120,000
제 9 회	2008年	6.29	31	1,016	130,000

<요사코이쓰가루실행위원회제공>

2008년 요사코이쓰가루에의 참가팀은 총 31팀으로 필자는 이들 팀 중 히로사키시(弘前市)를 근거지로 하는 3개 팀(津軽舞人, 花嵐桜組, 極楽ほんず)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가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2개 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쓰가루마이비토(津軽舞人)는 히로사키시를 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50명의 회원 중 40명만 현재 연습에 임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 50대의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있다. 대표(中村敦子)는 고등학교에서 기계체조를 주로 가르치던 체육교사

www.kci.go.kr

로 근무하다 정년을 한 전직교사이다. 5년 전부터 요사코이오도리를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습장소로는 시립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료로는 1시간에 한 명당 60엔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연습은 축제가 열리기 6개월 전부터 주 1회 1시간씩 행하고 있으며, 매년 소랑축제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오도리를 구상하며, 히로사키시가 자랑하는 자연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시라카미(白神)산지의 '여름 꽃'을 주테마로 하여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팀원들로 이루어진 만큼 오직 '쉽고 즐겁게'를 모토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1) 2008요사코이쓰가루에서의 쓰가루마이비토

시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한다는 가입한지 5년 된 쿠도우(61세)씨는 축제에 나가기까지 넌 회비 12,000 엔에 의상소품비등 약 30,000 엔 정도가 들어가지만, "춤추는 것이 즐겁고,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어서" 요사코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시내에서 단란주점(スナック)을 경영한다는 올해 처음 가입한 사사키(50세)씨는 이 팀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힘들지 않은 연습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평이 나있어 가입했다고 말했다.

고쿠라쿠혼즈(極楽ほんず)는 弘前市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요사코이 팀으로 한때는 7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0명의 회원 중 18명만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팀원의 남녀 구성비는 8:2정도이며, 평균 연령은

www.kci.go.kr

30대이다. 연습은 11월부터 주 2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오도리는 弘前의 전통축제인 네푸타마쓰리(ねぷた祭り)[7]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것은 팀원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했다. 연습장소로는 현립무도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팀 대표(田中聡志)는 “요사코이축제가 인기를 모으면서 시내에도 다양한 콘셉트로 무장한 참가팀이 새로이 생겨나 서로 회원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만 경쟁이 반드시 순기능만 발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때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많다” “현재 히로사키시를 비롯한 아오모리현 일대에서 활약하는 요사코이팀의 대표자들의 대부분이 우리와 같이 호흡을 맞추던 사이였는데, 자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동료들까지 데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로선 회원이 갑자기 줄어들어 초대 대표가 쌓아 놓은 실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젊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박력 넘치는 오도리와 리더십의 개발에 전념하여 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싶다”고 하여, 팀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사진2) 고쿠라쿠혼즈(極楽ほんず)와 필자

참가한 31개의 팀을 구성하는 연(縁)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모집

7) 쓰가루(津軽)지역의 전통네부타마쓰리(ねぶた祭り)를 통괄하는 개념으로는 “네부타(ねぶた)”가 통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네부타마쓰리(ねぶた祭り)라 하면 아오모리시(青森市)의 네부타(ねぶた)를 말함이고, 히로사키시(弘前市)의 네부타(ねぶた)는 네푸타마쓰리(ねぷた祭り)이다.

(選択縁)에 의한 동호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전통축제에서와 같은 지역 조나이카이를 중심으로 결성된 팀도 2개 팀이 있지만, 그 가입은 자유로우며 또한 일반모집을 겸하고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조나이팀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동호회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가 즐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지역이나 단체를 선전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사코이쓰가루축제는 동호회가 즐기는 것이 주 성격이기 때문에 네부타축제와는 달리 거대 기업이나 행정단체가 오도리팀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을 구성 연으로 하는 팀도 8팀이나 있어서 요사코이의 교육적 측면(인성교육)[8]이 강조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3) 2008년 요사코이쓰가루 참가팀의 연별(縁別) 구성표

구성 縁	참가팀수	참가인수
지역(町内会)	2	45
동호회	20	702
학교(유치원)	8	239
직장	1	30
합계	31	1016

참가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4)에서와 같이 축제의 개최지인 히로사키시를 근거지로 하는 팀은 전체 참가팀의 절반 정도이며, 현내(県内)의 주변도시에서 모여든 팀도 많다. 따라서 참가단체로 보면 단순히 개최지 히로사키시의 축제라기보다는 이웃지역과 함께 참가하고 즐기는 아오모리현 전체의 축제임을 알 수 있다. 아오모리현 밖에서 참여한 두 팀은 특별히 지역선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각 참여 팀이 표현하고자 하는 오도리의 내용은 아주 달랐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많은 걸 그룹들이 그러하듯이 팀별로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오도리를 보여주고 있었다.[9] 다만 걸 그룹들의 댄스가 예술적 섹시미를 강조

8) 학교에서의 요사코이의 실현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사・학생・학부모사이에 공통의 화제가 생겨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증대되고, 신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의 거리를 단축시켜, 자신과 타인의 또 다른 면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집단의 리듬을 체험하고 함께하는데서 오는 소외감의 해소와, 충분한 운동량은 충실감과 카타르시스를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언급되고 있다 (増山 1999: 129).

9) 위에 소개한 쓰가루마이비토(津軽舞人)와 고쿠라쿠혼즈(極楽ほんず)외에도 토우카즈이간(藤花瑞厳)은 지역 초나이카이(町内会)를 중심으로 쓰가루(津軽)지방이 자랑하는 풍부한 자연을 오도리에 담아 표현하였으며, 토와다바카도우(とわだ馬花道)는 토와다시(十和田市)의 명산물 말(馬)을 표현하는 오도리를 박

한다면, 오도리코들의 댄스에는 손동작이나 의상 하나하나에도 지역적 의미가 가미된 테마성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매년 달라지는 콘셉트와 테마는 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낸다. 오도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세련되고 재미있는 오도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해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참가하거나 관람할 수 있다.

표4) 2008년 요사코이쓰가루 참가팀의 지역별 분포

근거지	참가팀수	비 고
弘前市	13	花嵐桜組 등
青森県	16	青森市, 十和田市, 五所川原市 등
그 밖의 지역	2	北海道函館市, 福島県郡山市

야지마(矢島 2006:193)는 “유닛이 지탱하는 전체(ユニットが支える全体)”라는 말로 요사코이축제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즉, 집단의 서로 다른 에너지가 어우러져 축제 전체의 활기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축제의 구성단위인 참가단체가 그 참가단위에 애착을 나타내며, 그 독자성을 서로 겨룸으로서, 활기 있는 도시전체의 축제를 만들어 내게 되고, 따라서 각각의 단체(팀)가 표현하는 오도리의 특징이 전체의 축제를 활기차게 만든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아오모리하나아라시사쿠라구미와 오도리코

요사코이축제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오도리코팀들의 전국 요사코이 축제에의 참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히로사키시에도 아오모리현의 요사코이축제에도 참여하지만 현 밖의 요사코이 축제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에서의 무아지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새로이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야지마가 말하는 유닛의 하나인 참가단체(팀) 중 규모(회원 수)가 가장 크고, 안무도

력있고, 약동감 있게 연무했다. 또, 사이코마이히메카이(彩湖舞姫会)는 지역의 전설을 오도리로 표현하여 고향을 선전하였고, 쓰가루단즈(津軽だんず)는 화려한 부채를 들고 나와 쓰가루(津軽)지방의 유명한 사쿠라를 표현했다.

www.kci.go.kr

뛰어난 한 팀에 집중하여, 팀의 생성과정과 연습정도, 년 중 활동, 오도리코들의 축제의식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아오모리 하나아라시사쿠라구미(青森花嵐桜組, 이하 사쿠라구미)는 히로사키시(弘前市)를 거점으로 탄생하여 아오모리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요사코이' 팀이다. 2000년 봄, 쓰가루의 벚꽃이 만개할 시기에 팀이 결성되어 현내외의 요사코이축제 및 각종 이벤트에도 출전하여 활약하고 있다. 팀명은 팀이 소재하는 히로사키시의 '히로사키 공원'은, '벚꽃의 명소'로서, 봄이면 약 50종류 2600그루의 벚꽃이 피는 데서 유래한다. "때로는 '꽃'과 같이, 때로는 '폭풍우'와 같이 쓰가루의 벚꽃이 흩날리도록(듯이) 춤추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팀명이다. 팀의 목적은 지역의 요사코이쓰가루를 비롯하여 센다이(仙台)의 미치노쿠요사코이축제, 삿뽀로(札幌)의 소랑축제 등에도 출전하여 "연무를 통해서 고향 '아오모리', '쓰가루'를 표현"하는 것이며, 삿뽀로의 소랑축제에 참가하여 우승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요사코이쓰가루축제에 참가한 31개의 참가팀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오도리의 수준 또한 아마추어로 볼 수 없는 경지의 오도리를 표출하는 집단이다. 필자가 이 팀을 만난 것은 축제의 직전일로 최후의 연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연습 장소는 히로사키시와 아오모리시의 중간 지점인 나미오카(浪岡)의 중앙공민관(中央公民館)이었으며, 이날 실외에서 2시간에 걸친 진행형 퍼레이드와 실내로 이동 후에는 1시간에 걸친 정지형 퍼레이드의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다.

2008년의 오도리는 히로사키시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서의 이와키산신(岩木山 아오모리현에서 최고 높은 산)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와 이와키강(岩木川)을 타고 흐르는 드넓은 평야의 사계절을 나타내는 오도리가 수차례에 걸쳐 의상에 변화를 주면서 표현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도 오도리 속에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히로사키의 지역성을 표출하였다.

팀의 리더 오노(小野郁子)는 공인댄스 인스트럭터로서 현재, 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에 있는 20여의 댄스강좌의 강사로 근무하며, 2003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개회식・폐회식의 예술 프로그램안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팀의 안무・연출・의상 디자인 등의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한다. 즉, 사쿠라구미는 전문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춤과 음악을 피로하는 것이다. "사쿠라구미는 프로가 만든 '요사코이'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요사코이'를 만들고 싶다"고 팀의 리더는 말했다.

이 선언대로 절도 있고 호흡이 맞는 오도리를 목표로, 레벨 높은 군무를 축제에서 피로하기 위해 1년을 연습으로 보낸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회 연속으로 소랑축제에 참가하여, 2005년 제 5 위 '삿뽀로(札幌)시장상'과 2007년 제

www.kci.go.kr

4 위 ‘홋카이도(北海道)지사상’을 수상했다. 나루코는 붉은 바탕에 흑황흑(黒黄黒)의 표준형나루코를 사용하며, 나루코 이외에 꽃 우산(花傘)과 부채(扇)등의 소도구도 사용했다.

사쿠라구미는 2007년 시점에서 아오모리시와 히로사키시 기타의 쓰가루 지구의 일원에서 모여든 중고생에서 50대까지 약 90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28세 남녀 비는 1 : 9 정도로, 절반 정도가 리더의 댄스교실의 멤버들이고, 학생 다음으로 주부층이 많고 형제나 부모와 함께 참가한 멤버도 있다. 우치다(内田 1998)가 말하는 요사코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역,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모여든 전형적인 클럽 팀(クラブチーム,동호회)이며, 개인적 인간관계는 있었는지 몰라도, 입회 전까지 서로 사회적 연결고리는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딸 같은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멤버가 있듯이, 세대를 뛰어 넘는 멤버들이 함께 춤춘다. 쓰가루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회원의 거의가 아오모리와 히로사키에 살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마을(町村)에서 통근하며 연습하는 멤버도 있다. 또 1년 내내 활동하지만,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주로 매년 미치노쿠요사코이축제나 삿포로의 소랑축제[10] 같은 큰 대회가 끝나면 ‘신입멤버’가 들어오고 동시에 몇 명은 탈퇴해 나가기도 하여, 년 중 10명에서 20명도의 변화가 있다. 입회시에 오디션 같은 것은 일체 없으며, 13세부터 50세까지의 ‘춤출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가 가능하며 입회비를 포함한 연회비는 15,000 엔이었고, 한 사람이 1년에 걸쳐 요사코이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대체로 연회비와 의상비, 기타 소품비와 제잡비를 다하면, 평균적(일반적)으로 6만 엔 정도는 축제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회원의 절반은 댄스교실의 교습생으로서 재즈댄스나 에어로빅 등 댄스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야말로 아마추어이다. 그러나 축제뿐만 아니라 출연료를 받는 이벤트(결혼식 피로연, 개업축하연, 관주최의 이벤트 오프닝세리모니 등)에도 출연할 때가 있어서 ‘프로의식’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고 했다.

입회 동기는 친구의 권유나 아는 사람의 소개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요사코이를 하고 싶어서”, “멤버 모집광고를 보고”, “피로연회를 보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평소 동경하고 있었던 팀이어서”와 같은 이미 요사코이의 존재를 알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다 입회한 사람이 많았다. 요사코이를 알게 된 계기로는 “친구가 하고 있어서”, “직장동료가 하고 있어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학교 체육제를 통해서”, “연습을 견학하고”등의 대답이 많았다. 팀을

10) 센다이시(仙台市)에서 열리는 “미치노쿠요사코이(みちのくYOSAKOIまつり)”는 삿포로시(札幌市)의 요사코이 전국대회인 “소랑축제(よさこいソーラン祭り)”에 참가하기 위한 동북지방 예선의 성격을 띤다.

www.kci.go.kr

선택 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점은 '팀의 분위기', '의상', '안무의 컨셉', '회비', '연습시간' 등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연습은 전체 연습과 히로사키회장 연습 그리고 아오모리회장 연습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연습은 나미오카(浪岡)중앙공민관에서 매주 토요일 밤에 이루어지고, 히로사키회장은 후루가와(古川)酒店 2층 마루에서 아오모리회장은 아오모리시민홀에서 매주 목요일 밤과 일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해 이루어지다가 매년 '신작(新作)'의 연습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익년5월까지는 주 3회로 연습이 늘어나며 1년 내내 연습이 있다. 그 이유는 축제 이외의 이벤트에도 대응하기 위함이고, 물론 춤의 레벨을 높이기 위함이다.

요사코이는 매년 다른 곡으로 다른 춤을 선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쿠라구미도 6년 연속으로 삿뽀로의 소랑축제에 참가하여 매회 다른 신작을 피로하고 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멤버가 바뀌고, 새로운 곡이 늘어나도, 처음과 변함없는 분위기와 스타일을 유지해 가고 싶다고 대표는 말했다.

사쿠라구미의 1년은 12월부터 '신작(新作)'연습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익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안무를 익히는데, 최고의 목표는 6월에 있는 삿뽀로 소랑축제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소랑축제가 끝나면 곧바로 지역의 요사코이 쓰가루(6월)를 비롯하여 센다이의 미치노쿠요사코이축제(8월)가 이어지고 각종 이벤트(결혼식 피로연, 개업축하연, 관주최의 이벤트 오프닝세리모니 등)에도 출연하여 이때 익힌 오도리를 피로하다가 다시 12월을 맞는다는 것이다.

아래 표5)는 사쿠라구미의 오도리코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에 대한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축제현장에서의 인터뷰내용과 귀국 후 약 3년간에 걸쳐 E메일을 통한 서신교환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총 40여명의 응답을 받아 내용을 통합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표5)하나아라시사쿠라구미의 요사코이에 대한 의식

질문 1.	요사코이를 알게 된 계기를 가르쳐 주세요.
응답	당시의 직장상사와 동료가 하고 있어 권해서/친구의 아이가 하고 있었는데, 연습을 견학하고/친구가 하고 있었다. /친구의 부모가 하고 있던 것으로부터/우연히 고치에 여행가서 요사코이를 본 것이 계기/지금의 리더에게 스테이지로 납치되었을 때/팀의 대표와 어머니가 아는 사람관계로/텔레비전으로 보았다/작년 비디오를 보고/중학 때 동아리의 친구가 했다. /소란마쓰리의 폭발 사건으로 /학교의 체육제에서/사촌의 소개/대학의 댄스부에 들어가서/잡지의 기사를 읽고/우연히 역전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요사코이마쓰리 날 이였다.
질문 2.	요사코이에 참가하여 춤을 추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www.kci.go.kr

응답	먼저 아이들이 시작했는데, 인원수가 부족할 때에 춤추어 본 것이 최초로!/ 직장의 동료에 이끌려 /친구와 마쓰리를 보러 가서 충격을 받고/ 사귀던 친구의 권유로 /어딘지 모르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장대함을 느껴 스스로도 체감 하고 싶어져서/ 高知의 요사코이를 보고 감동한 것이 계기/TV보고 꼭하고 싶었습니다.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피아노를 그만두어 그 만큼의 돈이 남아서/ 초등학교의 운동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할머니에게 건강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나이를 먹어 춤출 수 없게 되기 전에 춤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춤추고 있는 모습이 매우 근사했으니까.
질문 3.	요사코이에서 춤 춘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답	2년 정도/5년째/5년 정도/1년 반 정도/ 5개월/4년/3年정도/4년째/1년하고 3개월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5년으로 다양했다)
질문 4.	현재의 팀에 들어간 계기를 가르쳐 주세요.
응답	아이가 들어있다!/ 아이와 함께 춤추고 싶어서/친구가 불러 팀의 설명회에 간 것이 계기/ 친구가 다니는 대학의 팀이었습니다./ 피로연회를 보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연습시간이 내 시간과 맞아서/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 계기/자신의 페이스로 연습할 수 있는 것과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끌려서/동경하고 있었던 팀이었으므로/매일 연습을 견학하러 갔습니다./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있던 팀이었으므로/아는 사람에 이끌려/춤이 멋지고 멤버가 모두 상냥해 보여서/동년배의 사람이 많아서/능숙해지고 싶어서
질문 5.	연습일과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응답	화요일 7시부터/ 매주 목요일의 19시 30분부터/목·일의 오후 6시 30분부터/ 화요일·목요일의 7시부터 9시까지/평일의 야간/화요일의 19시부터 21시까지/토, 일요일만/시즌전과 시즌중이라면 수요일과일요일, 지금은 일요일만,19시 21시까지/ 매주 수요일 밤에 1시간 정도/ 연습일은 목요일과 토요일 시간은 경우에 따릅니다만, 대개 6시나 9시 정도까지
질문 6.	연습 장소는 주로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응답	가까운 초등학교의 체육관/ 중학교 체육관/ 여러 곳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자택, /폐점 후의 직장, /비디오와 유리벽의 부분이 있어서 안성맞춤입니다. /시내의 체육관입니다 /여러 곳, /공공시설 등, 초등학교의 체육관이거나, 동사무소의 시설이나, 공원./중학교 /초등학교 /시청
질문 7.	연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월1000円/ 년12000円(의장비용은 別15000円정도) /없음/ 500円×12月/년 3 만円/ 어른5000円、어린이2500円/ 25000円에 의장비용25000円
질문 8.	요사코이 때문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연습도 견딜 수 있습니까?
응답	네. 열심히 연습하고, 실전같이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에게 훌륭한 것 보여 주고 싶은 걸요! /아니 그것은 무리다 /결과적으로는 참아냈지만, 힘든 연습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다. /참는다 /그럴 생각으로 노력한다 /아뇨, 한도가 있습니다.
질문9.	요사코이메이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젊은 사람한테는 무척 예쁜 것 같다. /모르겠다. /그냥 맨 얼굴이 좋다. /굉장히 수려하다고 생각한다. /화려하게 삽시다!/해마다 화려해 지는 것 같아요/근사하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할 수 없는 이상한 메이크로 하는 편이 반드시 즐겁다고 생각한다. /최고입니다! 나도 해 보고 싶습니다. /좋지 않습니까./개성과 주장이 확실해서, /축제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고 싶다 /자신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의상의 일부로 생각한다. /평상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워서 좋다.
질문10.	가족(연인)은 당신이 요사코이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찬반양론/괴짜/이번에는 꼭 끝까지 잘해보라고… /별 반응 없음/거의 같이 춤추고 있다/매우 긍정적/가족은 모릅니다/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좋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응원해 주고 있다/반대는 없습니다.
질문11.	다른 팀은 라이벌로 생각합니까?
응답	아니오! 동료. /라이벌. /모두가 진한 동료입니다. /그렇겠지요. /실전까지는 라이벌. /그렇지만 춤추기 시작하면 동료군요. /춤과 엔터테인먼트를 북돋우는 동료이기도 합니다만, 라이벌이 있는 것이 즐겁지요. /같은 뜻을 가진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 팀마다 여러 가지 개성이 있어 재미있습니다. /라이벌이군요./하지만 최후는 즐겁게. /라이벌이기도 하고, 요사코이로 연결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라이벌, 모든 팀이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동료. /라이벌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할까. /라이벌이자 동료일까?
질문12.	같은 팀의 멤버와는 사이가 좋습니까?
응답	사이는 좋다/ 굉장히 좋다/ 좋아요,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나쁘지는 않지만, 연령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 함께 놀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 집니다./이번에 한잔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거나 하고 있으니 사이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엄청 사이좋다! /거의 매일 팀원끼리 만나고 있습니다./격렬하게 사이가 좋다.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점점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13.	요사코이를 통해서 친구가 생겼습니까?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까?
응답	네, 의좋은 사이. /네,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소원해졌습니다만… /많이 사귀었어요! /의좋은 사이입니다. /여러 팀

www.kci.go.kr

	에 있습니다만, /요사코이 할 때만 연락합니다. /500명 정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사귈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은 없지만, 얼굴은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도. /이따금 메일 주고받는 정도일까?
질문14.	당신에게 있어서 요사코이는?
응답	지금은 생활의 일부일까?/취미!/산소 같은 존재/사는 보람입니다./인생 그 자체입니다./청춘의 한 페이지입니다./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일생에 걸친 청춘입니다./취미 이상,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자신이 자신과 마주볼 수 있는 시간/나의 일부/살아 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연인/회춘의 원천/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존재/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만나서 최고로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머릿속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존재/세대를 넘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앞으로도 쭉 소중히 하고 싶은 것/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질문15.	요사코이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응답	꽤,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지도… /변했습니다. /프로의 連이 있다면 가입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는 변하지 않지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 정도. /지금 변화 중… /요사코이고마워요! /변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 즐거워졌습니다. /바뀐다고 생각한다. /이런 즐거운 것이 세상에 있다고는 생각 못했다. /자신의 세계가 펼쳐진 느낌이 들었다.
질문16.	요사코이를 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자신의 성격이 달라집니까?
응답	다릅니다./다르군요./확실히/평상시는 더 어둡습니다./아니, 굉장한 차이는 없어요./같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르군요! 하고 있는 때는 뜨겁지만, 하지 않을 때는 꽤 점잖다. /할 때는 진지함 그 자체. /한마디로 명과 암. /다를까? /텐션은 확실히 오른다. /바뀌고 있다고 해야지요.
질문17.	몇 살까지 요사코이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응답	춤출 수 없을 때까지… /춤출 수 있는 동안은 춤춘다./몸이 가질 때까지! /이제 무리인가?, 할 수 있으면 쭉 계속하고 싶은데…/인생이 끝날 때까지./가능한 한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되어도 건재! /몸이 움직이는 한./시간이 있는 한.
질문18.	생활 속에서 요사코이를 우선시키고 있습니까?
응답	2번째 정도로./네! 요사코이가 첫 번째로 되어버립니다./너무 우선합니다./이전에는./그럴지도./그렇게 하고 싶습니다!/최우선은 아니구요./마쓰리가 코앞이니 지금은 최우선이군요!/아무튼 8할 우선입니다./아마./언제나 우선./미묘한 질문이군요./비교적./꽤 우선./물론
질문19.	요사코이의 매력을 가르쳐 주세요.
응답	즐거움./누구라도, 즐겁게 춤출 수 있다./모두 웃는 얼굴 가득한 곳

www.kci.go.kr

	에 매력 있다./동료의식이 넓어진다./일체감! 달성감! 마음! 땀!/열심히 연습하고, 모두의 춤이 모였을 때의 일체감은 최고입니다./집단연기인데, 개인 단위로도 가능한, 최고의 아트입니다./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보석과 같은 느낌이랄까?/자유로운 춤과 음악에서,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전해진다./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자신을 자신이 아니게 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일까./누구라도 할 수 있고, 일본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새로운 만남이 있다! 타 팀과의 교류./파워가 솟구친다./비일상. 춤추는 즐거움을 가르쳐 준다./싫은 일을 잊게 해 준다./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
질문20.	춤추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응답	상쾌하고 즐겁다. /자신이 빛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1년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발산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려 온다. 지금 내가 최고로 멋있을 지도 모른다. /자신이 스타가 된 기분입니다. /뭐랄까 확 가버린 느낌. /나이를 잊는다. 행복,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주역이구나!/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안 좋고 싫은 일 전부 잊습니다. /춤추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말 즐길 수 있다./ 실전은 팀의 모두와 정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즐겁다. 춤추고 있는 도중의 일은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트랜스 상태랄까!). /관객이 보면 볼수록 텐션이 오르지요.
질문21.	요사코이는 세계로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응답	더욱 유명해지고, 외국의 사람이 일본에 보러 와 주면 기쁘다 /넓히자/ 그렇게 생각한다./네, 틀림없습니다!/그렇게 생각합니다./여기까지 오면, 이제 예술이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일본을 자랑할 수 있는 마쓰리라고 생각합니다./타인의 문화를 손상시켜서까지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벌써 퍼지고 있다. 더 퍼진다고 생각한다./퍼진다! 절대!/일본 독자적인 문화이니까. 생각하지 않는다./퍼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요사코이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기제로 참여자는 축제 안에서 커다란 희열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여하는 팀으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춤을 구성하고 관람객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팀원들은 요사코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위 표5)의 질문(14 ~ 18)까지의 “당신에게 있어서 요사코이는?”, “요사코이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요사코이를 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자신의 성격이 달라집니까?”, “몇 살까지 요사코이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생활 속에서 요사코이를 우선시키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도리코 대부분이 요사코이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요사코이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질문13

www.kci.go.kr

의 “요사코이를 통해 친구를 사귀었고,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500명 정도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는 있을 정도로 요사코이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질문11과 12에서 알 수 있듯이 팀이 다르지만 라이벌보다는 동료로서 의식하는 사람이 많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력이 나타나는 기제는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춤을 출 수 있게 만든 데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춤을 통해 몰입하고 또한 동료로서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과 연 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사코이의 매력을 묻는 질문(질문19)에는, “누구라도 즐겁게 춤출 수 있다”, “모두 웃는 얼굴 가득한 곳에 매력 있다”, “즐거움”, “일체감”, “달성감(성취감)”, “텐션”, “동료의식”, “싫은 일을 잊게 해 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 “자유로운 춤과 음악에서,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전해진다”, “새로운 만남이 있다” 등의 대답이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현장에서 춤 출 때의 기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표현처럼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가 최고인 기분이 들기 때문에도 그렇고, 오도리가 나를 죽도록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날아가고 싶고, 말할 수 없이 재미있고,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한마디로 가버리는 것이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모두 날려 보내는 체험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요사코이 축제인 것이다.[11]

표5)의 대답들을 종합해 보면, 요사코이쓰가루가 관광상품이지만 사람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문화장치들을 잘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팀의 선택과 오도리의 개발, 여가를 활용한 오랜 기간 동안의 연습, 그 과정에서 맛보는 동료애, 그리고 축제현장에서의 비일상성,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요사코이가 일상에 얽매인 자신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주며 삶에 희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사코이축제에서는 자신이 축제에 오도리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12] 다시 말해 오도리

11) 이덕구(2009:160~161)는 지역의 전통축제에의 참여의식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유형을 도시 속의 간접고향(宮田 1992:9)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참가하는 유형, 축제 프로그램 자체의 매력(하네토의 일탈성과 역동성, 네부타의 볼거리 등)에 매료되어 참가하는 유형, 축제가 볼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억과 감성을 제공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유형, 축제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적 속성과 신앙으로 참가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 지역의 전통축제에의 참여의식은 좀 더 다양하게 분파되어 나타난다.

12) 지역전통축제(아오모리네부타)에의 참여자들 의식에는 자신의 참여가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식도 강하게 나타나지만(이덕구 2009, p.206참조), 요사코이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지역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답은 한 건도 없었다.

코들은 축제의 장소에서 일상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무아지경의 '자기실현'을 오도리를 통해 달성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이것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축제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弘前よさこい津軽)는 쓰가루지방에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온 전통축제가 아니라 최근 지역 중심상점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 지역(札幌)으로부터 도입된 이벤트로서 지역의 정체성과는 본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오도리와 의상을 통하여 지역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자신의 형태에 맞게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오도리코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요의식은 '재미', '행복', '긴장(텐션)', 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아지경의 자기실현을 맛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관객과 오도리코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에 빠져 일시적으로 공동체로 매몰되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상적으로 억압받던 것에서 탈출해 내면의 '자기실현'을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弘前よさこい津軽)에 참여하는 수많은 오도리코들이, 요사코이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 "새로운 만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등의 매력이 있어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사이좋게 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축제의 장에서 맛보는 무아지경의 희열 못지않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폭넓은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큰 의미를 두고, 또 그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요사코이축제는 40만이 넘는 요사코이 인구[13]가 말해주듯이 관광목적의 단순한 이벤트로서의 의미를 넘어,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인간관계의 희박화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이나, 고독감, 소외감 등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인간애를 나누고자하는 '사회운동'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현대적 축제에는 참여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한 직접적인 체험장치가 축제의 대중화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고는 말하고 있으며, 이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축제에도 시사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

www.kci.go.kr

13) http://www.maturiisyou.jp/yosakoi/explanation.html 참조

【参考文献】

이덕구(2009)『공동체축제에서 관광상품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일본 아오모리네부타축제와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1)「도시특성과 축제-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축제 변화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제4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9-307

伊藤亜人(1987)「よさこい祭り,中国・韓国の祭りとの比較(都市の祭り--都市人類学的考察シンポジウムコメント)」京都大学人類学研究会編『季刊人類学』18巻3号, pp.37-47

内田忠賢(1992)「都市と祭り-高知よさこい祭りへのアプローチ(1)」『高知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書(第2部)』四五号

_____(1994)「地域イベントの社会と空間-高知よさこい祭りへのアプローチ(2)」『高知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書(第2部)』四七号

_____(1998)「地域イベントのゆくえ：高知よさこい祭り」『現代風俗学研究』四号

_____(2000)「変化しつづける都市祝祭-高知よさこい祭り」日本生活学会編『祝祭の100年』ドメス出版 pp.130-147

_____(2004)「地域文化の創造-よさこい・YOSAKOI系祭りの全国的展開」人文地理学会編『人文地理』 Vol.56, No.6 通号 330, pp.667-669

岡崎直温(2006)『よさこいはよさこいじゃき』イープレス出版

増山尚美(1999)「YOSAKOIソーラン祭りの拡大に関する一考察」北海道女子大学短期大学部研究紀要 第36号 pp.121-130

松平 誠 (1990)『都市祝祭の社会学』有斐閣

_____(1994)『現代ニッポン祭り考』小学館

矢島妙子(2000a)「よさこい祭りの地域的性展開一その予備的考察」『常民文化』23号成城大学常民文化研究会

_____(2000b)「祭りよさこいの誕生一感動した旅人たち」『現代風俗研究』6号 現代風俗学研究会

_____(2000c)「祝祭の受容と展開一YOSAKOIソーラン祭り」日本生活学会編『祝祭の100年』ドメス出版 pp.148-174

_____(2003a)「よさこい祭りに見る地域性についての人類学的一考察」江戸川大学『観光・まちづくり・文化財と都市祭礼 : 都市祭礼の戦後史』pp.78-84

www.kci.go.kr

_____(2003b)「よさこい系祭りの全国展開の分析」江戸川大学『観光・まちづくり・文化財と都市祭礼 : 都市祭礼の戦後史』pp.116-126
_____(2006)「よさこい系祭りの都市民俗学的研究」 名古屋大学 博士論文
柳田国男(1990)「日本の祭」『柳田国男全集13』弘文堂書房

弘前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画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igaichi/pdf/01.pdf)
弘前市공식홈페이지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oukei/soukei/soukei.pdf#page=12).
http://www.maturiisyou.jp/yosakoi/explanation.html

www.kci.go.kr

要 旨

日本の祭りは日本社会の性格の変化と共に、各時代の要求に有效に活用されて来たと言える。宗教の儀式としての伝統祭りは、戦後になって、観光及び商業振興を目的とするイベントとして変化しつつある。

従って、祭りに参加する人々の意識の面においても、五穀豊穣と無病息災を祈る宗教行事としての共同体意識から、環境運動、女性運動、生協運動、ボランティア運動と共に自分の都市や地域を活かす地域運動、ひいては自己実現などと言った市民意識までの多様な形に変化が現われている。

弘前市のよさこい津軽は衰退した都心を活性化しようとする計画の一環として、2000年から始まった都心の商人連合会が行うイベントである。

よさこい津軽に踊り子として参加する人々の主な意識は「楽しさ」「幸せ」「テンション」などとに集約することができた。踊り子はよさこいを通して無我地境の自己実現を味わっていると言える。即ち、観客と踊り子が一緒になって一時的に幸福感を感じるのである。だけでなく、踊り子はよさこい津軽を通して幅広い人間関係を形成することにも大きな意味を与えている。また、それを期待している。

したがって、現代の祭り(よさこい)は、祭り本来の意味を乗り越えて、急激な都会化と高度に情報化された社会を生きて行く現代人が、精神的な不安感や、孤独感、疎外感などから抜け出して、新しい人間関係を構築し、人間愛を分かち合おうとする「社会運動」的な性格も帯びているとも言えよう。

キーワード：よさこい津軽、祭りのイベント化、参加意識、楽しさ、自己実現、
人間関係、社会運動、踊りの大衆化

투　　고：2012. 5. 31
1차 심사：2012. 6. 16
2차 심사：2012. 7. 7

www.kci.go.kr